



“새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2022년의 첫 일요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은 한 신자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소원의 텁에 새해 소망을 적은 메모지를 달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도훈기자

“성난 부동산 민심 잡아라” 공약 경쟁 치열

李·尹 모두 250만호 공급 제시
방법론은 ‘공공’·‘민간’ 주도 주장
규제 시각도 ‘강화’·‘완화’에 무게
안철수·심상정 후보도 “공급 확대”
전문가 “세부 이행방안 부족” 지적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의 부동산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정권교체를 노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로,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공급에 각각 방침을 짜어 각론에 선 시각차가 드러난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어 대비된다.

두 후보가 공히 250만호 공급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 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최근에는 대규모 공급을 위한 택지 밸류에도 나섰다. 용산공원과 김포공항, 성남시율공항, 수원비행장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공고롭게도 두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신규 주택 규모는 250만호로 동일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방향성이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매년 6만호씩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것 목표다.

이 후보의 기본 생각은 ‘집 없는 세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생활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롭질의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 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최근에는 대규모 공

급을 위한 택지 밸류에도 나섰다. 용산공원과 김포공항, 성남시율공항, 수원비행장 등도 후

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

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 ‘원

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매년

6만호씩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것 목표다.

이 후보는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

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면 추가

비용 없이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과 싸운 것이 가장 큰 문제”

라며 “공공이 모든 걸 주도하고 바꿀 수 있다

는 것은 교만”이라고 비판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에 16만~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5%인 공공주택 비중

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세

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년층을 위한 공

공주택을 짓는 것을 비롯해 대법원-대검찰청

부지,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 용산

미군기지 일부 등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에 관한 시각도 다르다.

이 후보는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후보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

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투기 방지 위해 고위공직

자 부동산 베타藓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

이다.

또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주택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감독원을 설

치해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

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

채상관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

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을 통해 힘을 뺏긴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

면서도 세부 이행 방안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

으고 있다.

이 후보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

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투기 방지 위해 고위공직

자 부동산 베타藓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

이다.

또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주택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감독원을 설

치해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

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

채상관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

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을 통해 힘을 뺏긴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

면서도 세부 이행 방안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

으고 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오늘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생긴다

3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오늘은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3차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2차 접종 14일 후부터 180일까지
9일까지 계도기간·10일부터 적용

추가접종 미완료시 영화관 등 이용 불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

는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벌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VID-19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된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

종 원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

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

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 전국매일신문 임직원 일동 -

SAMSUNG

더 나은 미래로

모두가 꿈을 향해
성큼 나아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단신브리핑

폭염 디지털 트윈 구축 10억원 확보

대구시는 시는 재난안전 특별부서 공모사업에 '폭염 디지털 트윈 개발사업'이 선정돼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폭염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폭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폭염디지털 트윈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염 디지털 트윈'이란 첨단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동일한 환경의 지형, 건물, 일조권, 교통상황, 기상정보 등을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구현해 폭염 취약지 파악, 우선 대응 지역 선정 등 실시간 자료기반의 분석을 통해 지역별 충격 저하방지 및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시는 폭염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피해경감을 목표로 대구지역의 폭염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유하고 폭염예警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구시 재난안전 플랫폼(안전동아리)을 통해 제공 예정이다. 개발 완료시 '초대기 폭염재난 예측'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최소화 및 폭염피해 예방·경감 등에 효과적이고 신제적인 재난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 신용대기자 shindy@jeonmae.co.kr

2021 미래교육지구 우수기관 선정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미래형 교육지구 협력지구의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 표장을 수受到了。

시는 시장·교육청이 협력해 공동설립한 세종설립부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을방폐후 운영, 진로체험터 활성화, 실무분과 운영, 미을배움터를 시범 운영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세종시민의 특화된 방폐후 모델로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더 자립미을방폐후' 프로그램을 운영, 전국적인 수준사례로 주목 받았다. 올해는 더 자립미을방폐후 확대, 디올메리어 신설지역 발굴, 읍면 미을교육 공동체 확대, 관내 체험터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희 시장은 "앞으로도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유양준기자 yijyou@jeonmae.co.kr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31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 수원시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着手해 현재 기초조사를 진행하며 상위계획 등을 검토 중이며 시민에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했다.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수요'를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는 지역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글, 그림, 사진, 동영상 등으로 미래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응모하면 된다. 시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1월 홈페이지(www.suwonupnpkr)를 개설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나, 홈페이지 개설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활동을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승강기 등 곳곳에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안내 홍보물을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홍보물에 새겨진 쿠알(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편하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시의 공간구조, 지형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별전 종합계획'이다.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수원 / 박선식기자 ssapk@jeonmae.co.kr

전남도, 수도권·영남권 2시간대 철도망 구축 가속화

올해 국비 9164억 반영…보성~임성리 구간 내년 개통
광주 송정~보성~순천 있는 경전선 철도사업 추진

전남도는 올해 9164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수도권·영남권과 2시간대 철도망 구축

표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보성~임성리 간 철도사업은 240억원, 진주~광주 간 경전선 철도사업은 408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개통한다. 보성~순천 구간도 2025년까지 완공하면 보성~임성리 철도와 연결돼 목포~부산 전 구간이 이어진다.

현재 철도를 이용해 목포에서 부산을 가려면 광주를 경유해 소요시간이 6시간 36분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광주 경유 없이 목포에서 보성으로 바로 연결해 부산~목포 소요시간이 2시간 24분대로 줄어든다.

특히 광주 송정~보성~순천을 있는 경전선 철도사업에도 2400억원이 반영됐다.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와 달빛나루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3개 노선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현재 국토교

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예산~여수를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 89.2km에 3조 357억원을 들여 기존 전라선의 골곡 구간을 신설 개량한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당초 2시간 40분대에서 34분이 단축된 2시간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1조 525억원을 들여 광주 상무역을 시작으로 나주 남평과 혁신도시, 나주역을 잇는 광주·전남 상생노선

이다. 달빛나루철도는 198.8km구간에 4조 515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를 잇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연결을 위한 남북횡단철도뿐만 아니라 동서를 잇는 철도망도 열리고 있다"며 "연차별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으로 호남권 주민의 편의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호랑이의 해를 맞아…'어서와 평범' 2일 코엑스 앞에서 시민들이 일상회복의 새해를 기원하는 초대형 흑호 미디어아트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한상규기자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이달 전면 시행

기존 혜택에 대중교통 환승비도 지원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는 카드 소유자가 수도권 전철 및 타 시도 버스와 충남 버스 간 사후 환급 방식으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물론 기존 알뜰교통카드 기능인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 만큼 카드 마일리지를 받는 것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차비용, 확장성, 효율성, 이용자 통제제공

등이 특징이다.

또 지자체 간 환승 정책을 시행하려면 행정적 절차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알뜰교통카드는 5000만원으로 환승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후 다른 교통수단에도 적용이 쉽고, 교통카드 백데이터도 활용이 가능해 새로운 교통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카드, 하나카드 3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만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교통카드에 버스비 무료 기능을 탑재해 오는 4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은

"일뜰교통카드 도입으로 수도권 전철 및 타 시도 버스와의 환승이 가능해졌다"며 "대중교통이 더욱 활성화되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양, 시민참여 네이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단체·기관에 최대 800만원의 사업비를 준다. 행복회습센터 공동프로그램은 시·행복회습센터에 지정된 74곳 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2곳 이상의 행복회습센터가 하나의 팀을 꾸려 공동 운영하는 사업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행 단체·기관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성인평생교육은 학령기기에 장애 정기교수의 기회를 놓친 비장애인에게 한글 교육을 하는 단체·기관에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등에 드는 경비를 최대 100만원 보조한다. 우수평생학습은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성남시, 3억3000만원 투입 6개 평생학습 지원사업 추진

경기 성남시는 올해 3억 3000여만원을 투입해 6개의 평생학습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습동아리,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행복회습센터 공동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성인문화교육,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이다.

이들 사업은 수행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신청해 연간 100만~1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등이면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등에 드는 경비를 최대 100만원 보조한다.

우수평생학습은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행복하고 안전한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원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 | |
|--------|-----|
| 위 원 장 | 안복동 |
| 부위 원 장 | 신동원 |
| 부위 원 장 | 이미옥 |
| 위 원 | 김태권 |
| 위 원 | 부준혁 |
| 위 원 | 이영규 |
| 위 원 | 이한국 |

행정재경위원회

| | |
|--------|-----|
| 위 원 장 | 차미중 |
| 부위 원 장 | 주연숙 |
| 위 원 | 강금희 |
| 위 원 | 변석주 |
| 위 원 | 손영준 |
| 위 원 | 안복동 |
| 위 원 | 주희준 |

보건복지위원회

| | |
|--------|-----|
| 위 원 장 | 임시오 |
| 부위 원 장 | 이영규 |
| 위 원 | 김준성 |
| 위 원 | 김태권 |
| 위 원 | 부준혁 |
| 위 원 | 서기팔 |
| 위 원 | 여운태 |

도시환경위원회

| | |
|--------|-----|
| 위 원 장 | 김선희 |
| 부위 원 장 | 신동원 |
| 위 원 | 이경철 |
| 위 원 | 이미옥 |
| 위 원 | 이철근 |
| 위 원 | 이한국 |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등 지원 대폭 늘린다



2022년 임인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정책

2022년 새해는 경기도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또 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장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0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시·군 담당 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구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50원 증가한 512만110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금월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농민기본소득 지원 17개 시·군으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 확대
인권모니터단 인원 1000명 규모로
법 위반 기업 지원사업 제한 시행

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발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상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 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준에 운영 중이던 종장년 수다 실통, 식생활 개선나이팅,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을 동일하게 운영된다.

● 산업·경제·농어업·축산·신림 분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새해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범위와 회의 심의를 거쳐 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 환경·도시·교통·건설 분야

▲경기도 단독주택 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접수리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자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진진구 해체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회단, 대문 등 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 재난안전·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오는 4월부터 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謹賀新年

새해 뜻 많이
받으세요

2022壬寅年

사랑과 소망을 이루는
화평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수정산업(주) / 서해선박(주)
041) 681-6570 / 041) 681-6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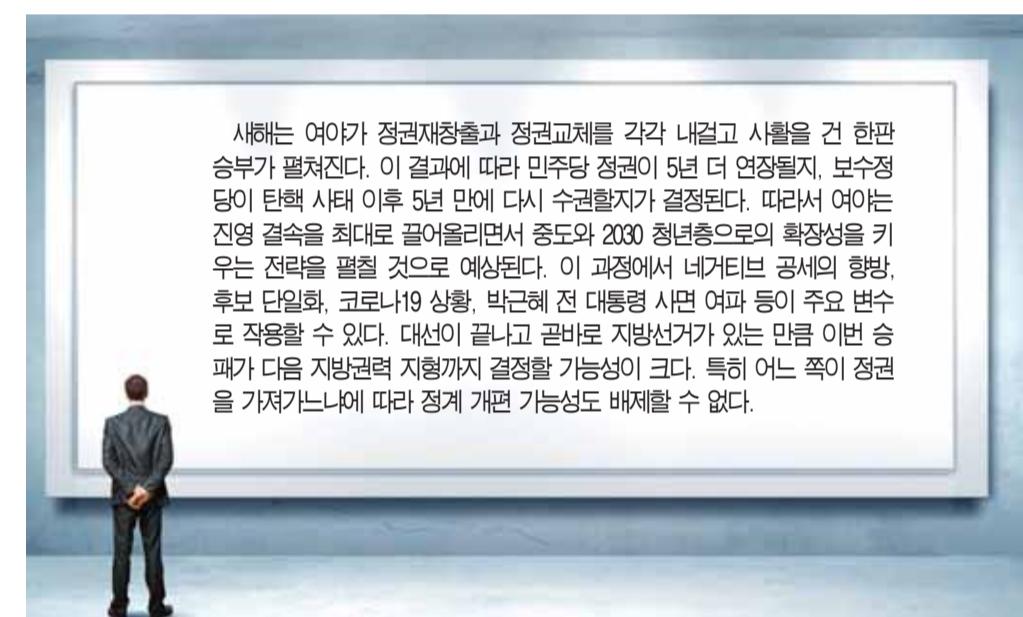
정권재창출 vs 정권교체…여야 승패따라 권력지형 ‘요동’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해도 가평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운암산 설경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  가평군 



2022 정국 전망 떠오른 선거의 해

●李-尹 양강 집전…중도·청년 구애 승자는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4자 구도로 확정됐지만 신성정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가 공고해졌다.

하지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험하게 이·윤 후보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긴힌 형국이다.

이지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되레 증기하는 아래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권재창출 여론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 아전에 비교적 유리할에도 윤 후보가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서 승리를 가능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따라 지지 후보 결정을 망설이는 중도층과 청년층의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네거티브 공방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을 경악.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행보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 실정론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윤 후보는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교체 여론을 모니내는 데 주력을 기울였다.

이후에는 네거티브 공방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 부인의 하위 이력 의혹을 비롯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근거 부족한 네거티브 공세는 막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들 두 후보가 박빙 구도로 갈수록 진영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 이슈가 대두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절차에 돌입, 진영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정의당과의 단일화 시나리오는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영입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라는 밀이 당 안팎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접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안 후보에게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출구’를 마련해주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된다.

또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보수 진영이 분열하는 소재로 작용할지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및 여야의 코로나 공약 경쟁도 눈여겨 볼만한 변수다.

●승패 따라 권력지형 바뀐다…정계개편 격랑 속으로
이번 대선 이후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전이재명계의 구심력이 강화되면서 친문재인계가 재편되는 등 민주당의 주류 교체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대선 승리가 6·1 지방선거 결과와 연동되며 민주당이 지방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19대 대선 다음 해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시·도지사 17곳 중 절반 예상인 민주당이 14곳을 쌈을 힘들며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행정부와의 회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다시 한번 장악하면 서 내부적으로는 장기 집권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면 참패한 보수 진영은 ‘해체’ 수준의 전면 개편을 해야 하는 상

황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의석 구조상 다음 총선까지 2년간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법보수 통합, 민주당과의 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회권력 열세 상황을扭화하기 위해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지방권력을 우선적인 정치적 기반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면 민주당도 많이 변할 것”(윤 후보)이라며 대선 승리 시 정계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한편 일각에서는 험치·탕평 내각, 나이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주택시장 상승세 ‘숨고르기’…“선거가 최대 변수”

“

전국적으로 크게 오른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최근 금융당국의 조강력 대출 규제 등에 따른 거래 급감으로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국책·민간 연구기관들은 일제히 제한적이나마 내년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새해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가운데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는 집값의 향방을 기를 최대 변수로 예상된다.

”

● 새해 집값 2~5% 상승 전망…선거·대출 규제 변수

국토연구원은 새해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인 수도권 9.4%, 지방 6.1%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한정부가 재임 기간에 집값을 하락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와는 배치된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전국 5.0% 상승), 우리금융경영연구소(3.7% 상승), 주택산업연구원(2.5% 상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 상승)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수치는 다른지만 모두 새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서울의 공급 부족이다. 주신연은 자체 주택 수급량 산정 방식을 통해 현 정부 5년 동안 서울은 14만가구, 경기·인천은 9만가구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어난 국가 예산에 대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새해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이 서울 집값을 자극할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라면 조강력 대출 규제 기조와 금리 인상 압박, 보유세 부담 급증은 집값 상승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새해 차리질 대비과 지선이 향후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할 최대형 변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는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방식과 세금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된다”며 “특히 보유세 완화와 디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방인이 최종 확정되면 매물 출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시장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

전세 시장은 새해에도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산업연구원(이하 전국 6.5% 상승), 주택산업연구원(3.5% 상승), 건설정책연구원(4.0% 상승)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모두 전셋값 상승을 예상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나아가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 시행시기 |
|-------------------|---|----------------------------|
| 구분 | 내용 | |
| 세제 |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1월 |
| 대출 |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개선 제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강화) | 1월 |
| 제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제고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 지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본 마련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원회 등 인센티브 부여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변경 농지원부 면지별로 작성 지역상권법 시행 아파트 증간 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실거주자 헌전 세대 대출금은 지역건보로 산정에서 제외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주차면 5% 의무화 | 1월 2월 4월 7월 연중 |
| 청약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기준 2차녀 이상 확대 | 연중 |

주) 상기 항목의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함
자료: 부동산R114



공급 부족 속 대출 규제 금리·보유세 부담
대선·지방선거, 규제 완화·개발 호재 작용
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시장 불안 예측



특히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전세 계약이 오는 7월 말 이후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은 전·월세 가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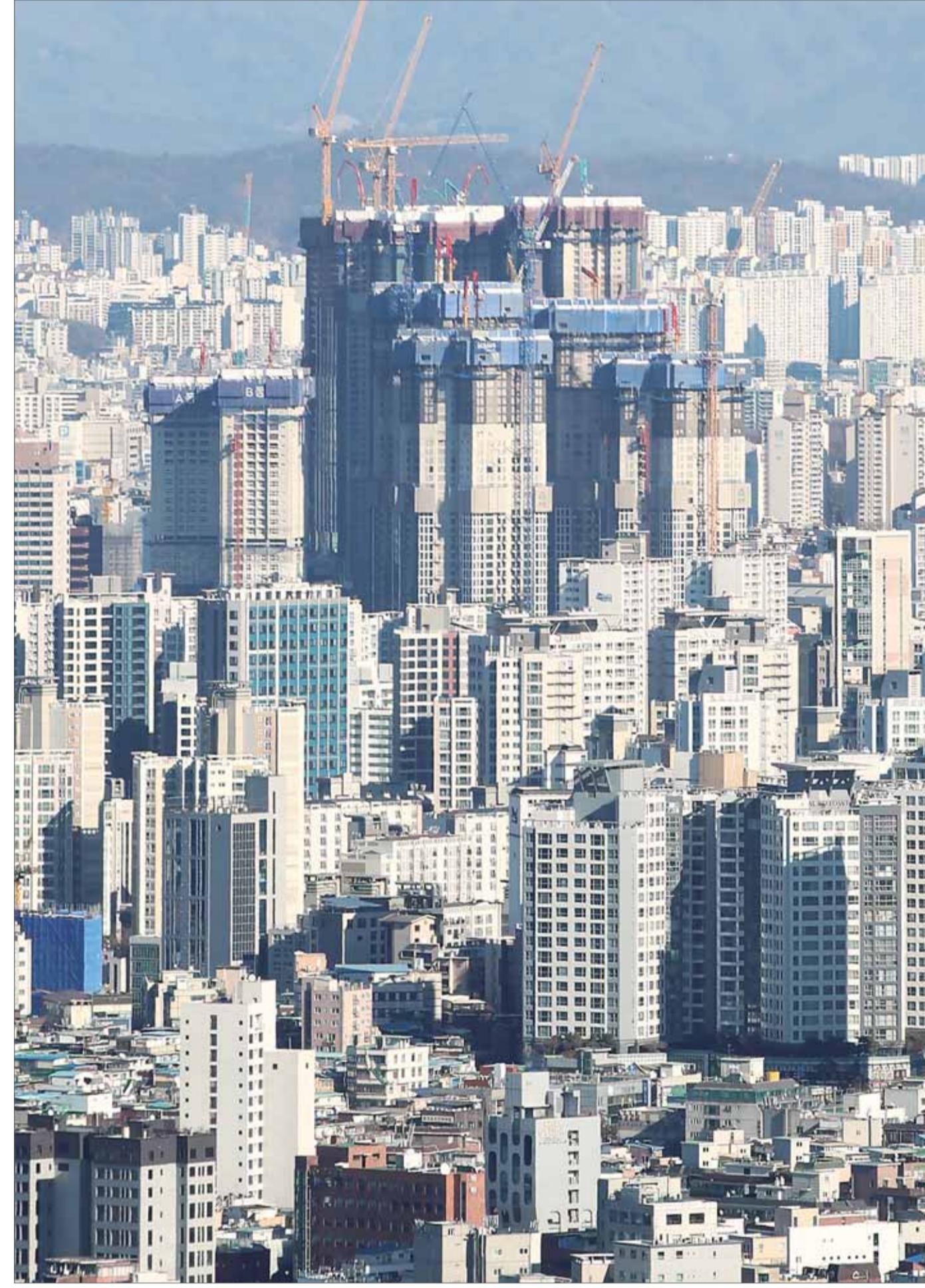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했던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상승 폭은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간 2년이 종료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며 임대차 시장에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수도권(14만2751가구)과 지방(11만8635가구) 모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22.0% 씩 늘어난다. 시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적으로 올해 대비 10.3% 증가한 31만4308가구다. 지난해보다 수도권(16만6897가구)은 1.2%, 지방(14만74067가구)은 22.6% 늘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직방 기준 1만8148가구, 부동산R114 기준 2만520가구로 지난해 대비 각각 14.0%, 35.8% 증가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회기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등지에서 입주 물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 물량부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하반기에 시장이 불안 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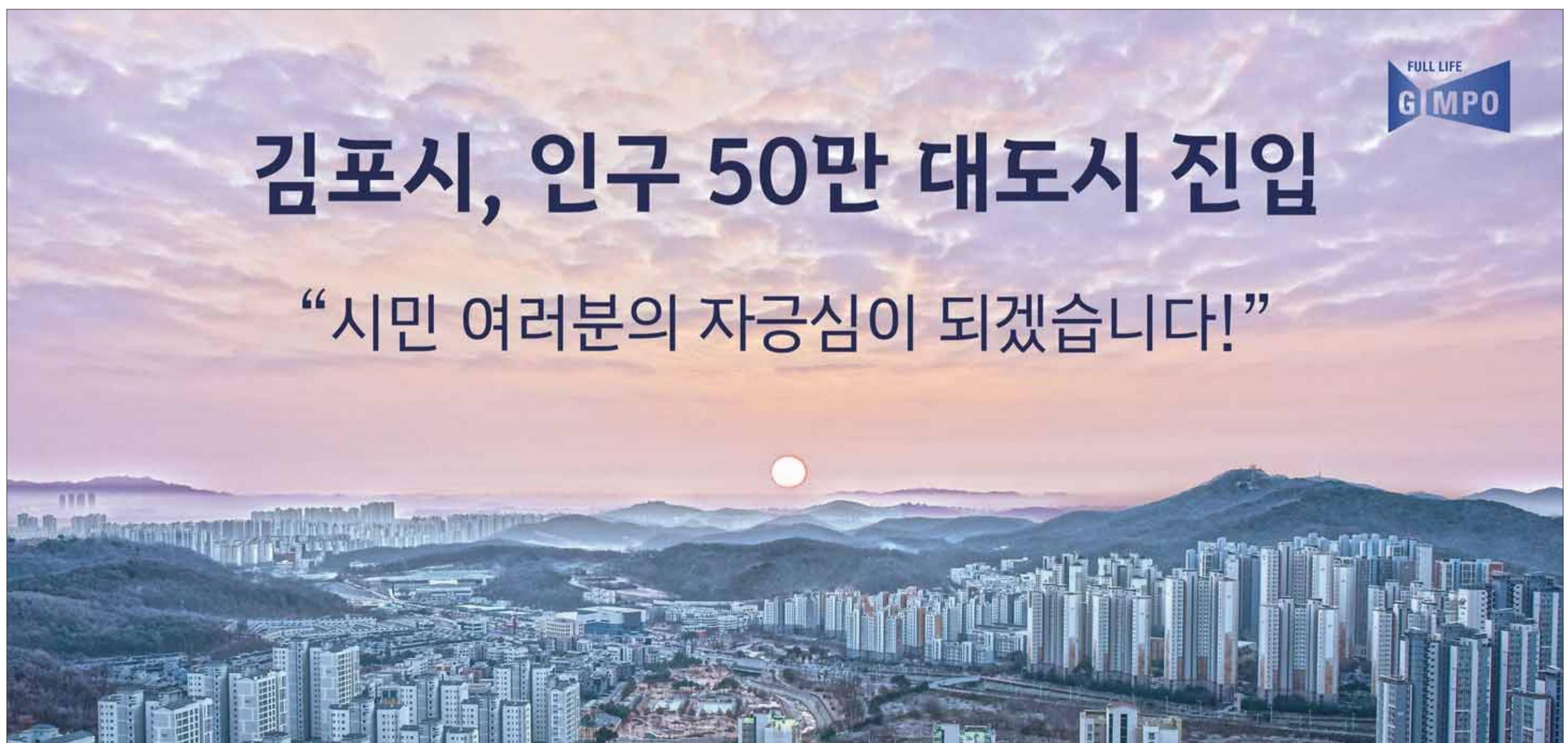


새해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가운데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는 집값의 향방을 기를 최대 변수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김포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시민 여러분의 자긍심이 되겠습니다!”



'관악중부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행운동 '관악중부시장(관악로 222 와 26필지)'을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러 상인조직회, 개별 점포 컨설팅 및 각종 교육 등 상인여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며 기틀을 견고히 다져왔다. 그 결과 앞서 지난 20일 난곡 골목형상점가를 제2호로 지정한 데에 이어 '관악중부시장'을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으로 관악중부시장은 기존 전통시장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이 증가돼 매출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가로수길 은행나무에 '그래피티 니팅' 입혀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신사동이 1일부터 신사동 가로수길 680m 구간의 은행나무에 뜯개웃을 입힌 '그래피티 니팅(Graffiti Knitting)' 작품을 전시 중이다.

'그래피티 니팅'은 형형색색의 텁실로 뜯 덮개를 이용한 친환경 거리예술이다. 신사동 주민센터는 가로수길을 2017년부터 매년 다른 주제와 콘셉트로 전시해왔다. 올해는 가로수길 정비사업을 기념해 가로수길의 '재탄생'을 주제로 124그루에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신사동 주민과 학생 등 1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네이버 밴드에서 참여자들이 작품을 공유하며 각자의 집에서 직접 손뜨개 작업을 했다.

청소년 축구교실 참가자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차현일)는 청소년 기초체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영등포구 청소년 축구교실 신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저학년 축구교실과 어린이 축구교실로 나눠 운영되며, 각각 초등학교 1~3학년 저학년과 4~6학년 고학년 대상이다.

모집인원은 저학년반 20명, 어린이반 20명으로 총 40명이며, 평소 축구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영등포구 거주 또는 관내 학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생활체육교실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1~2월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강습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강습은 2월 중 참여자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도봉구,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홈페이지 게시

이동진 구청장 "달라지는 제도 통해 구민 일상 편리하고 윤택해지길 기대"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도봉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2022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구민들의 일상이 보다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 생활편의와 관련

한 차지, 문화, 교육, 복지, 균형, 안전 총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수록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지 분야에서는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아지고 인구수 7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됐던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문화공간이 추가 조성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 소리반사 효과만으로 공연하는 대규모 전환 경 야외 공연시설 '평화울림터'가 문을 연다. 전문 예술인의 정기공연을 비롯, 자연과 함께 문화행사와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옥의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 특성화 '한옥도서관'이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을 다양화한다. 모든 유아에게 차별없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한다. 신입생들의 필수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벗어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추가 도입된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빨래를 무료로 수거하여 세탁과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아동 정책을 강화

한다.

균형 분야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도봉실내수영장을 리모델링해 기구필라테스, 서킷핏, GX 실 등이 마련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이 2월에 개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창동역 서쪽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이밖에도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변동,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등 다양한 사업이 신규로 시행된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은평구, 2021년 구정 10대 뉴스 선정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1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경희)는 최근 14일 동안 '은평구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 은평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민 2409명이 참여한 은평인 투표 결과 응답자의 10.1%가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을 향유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 예산'이 94%로 2위

를 차지했다.

또 '은평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은평의 얼굴, 홍보대상 위촉' 8%, '은평어르신 일자리센터 개관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8%,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밥 박사' 7.1%,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 5.7%, '은평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5.1%, '광

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과 '학생 참여 프로젝트' 내가 그린 공감학교 조성'이 각각 4.7%를 차지했다.

온라인 투표 참여자는 여성이 62.8%로 남성 37.2%보다 25.6% 많았으며 연령은 30대가 3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26.7%, 20대 17.0%, 50대 11.6%, 60대 이상 8.2%, 10대 2.0% 순이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성동구, 환경부 폐기물 처리평가 '전국 최우수구' 선정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 세 번째)이 금호2~3기동 푸르미 재활용 청장장에서 지원관사들과 작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시스템의 효율적인 속도 조절과 함께 재활용 선별장의 인력 재배치도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분야별로 높아진 효율적 전략방안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해 폐기물처리비는 절감되고 판매수익금은 증가하여 지난해 대비(21.9월말 기준)총 6억5천5백만 원의 수익 성과를 냈다.

구는 정거장 운영과 함께 종이팩과 아이스팩 수거함을 전 동에 설치해 주민참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폐트병 라벨 사용 등을 촉구하며 ESG행정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2025년 수도권마립니 종료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순환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구로구, 구청·보건소 조직개편 단행

스마트구로 도약·일상회복 지원 등 최우선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스마트 구로로 도약하고 주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등 구청 최우선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과 보건소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에 따라 구청은 1일 6군, 1실 1담당관 1번, 34과(150팀)으로, 보건소는 17일 5과(21팀)으로 조직체제가 조정된다.

구는 스마트 기술과 휴식 녹지 공간을 함께 갖춘 미래지향적 도시로 성장하고자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 발전기획단에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등 총 3개 과를 마련했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최첨단 기술을 갖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미래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스마트혁신국을 신설한다. 이어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던 홍보전산과를 스마트혁신 국으로 옮긴다. 홍보전산과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행정관리국은 예산과 예산집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지역보건과는 건강증진과로

국으로 옮긴다. 홍보전산과는 각종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며 스마트도시로서 더욱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안전과에 중대재해관리팀도 새로 만든다.

코로나19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일상회복에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소 체제도 조정한다. 질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일상회복지원팀도 새로 설치한다. 감염병대응팀, 방역관리팀에서 명칭을 변경한 감염병예방팀, 동물복지팀을 지역보건과에서 질병관리과로 이전한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최첨단 기술을 갖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미래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스마트혁신국을 신설한다. 이어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던 홍보전산과를 스마트혁신국으로 옮긴다. 박정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양천구, 조직운영 우수자치단체 기관표창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2021년 조직운영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돼 기관표창(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우수 사례 창출을 유도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분석·진단,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17개 기관이 최종 선발됐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양천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구는 미래 30년을 대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다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

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폐트병 라벨 사용 등을 촉구하며 ESG행정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2025년 수도권마립니 종료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순환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서대문구의회

의장 박경희

부의장 이경선

의회 운영 위원회



행정복지 위원회



재정건설 위원회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행복한 미래 새해운주자

희망찬 새해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인정 넘치는 중랑에서
소중한 꿈과 행복 가꾸시길 기원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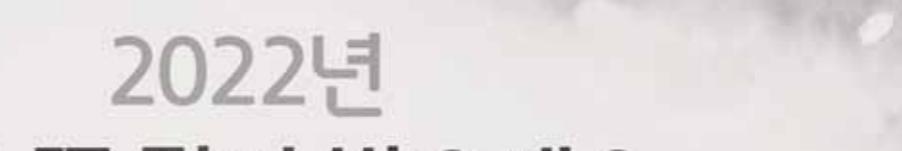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서대문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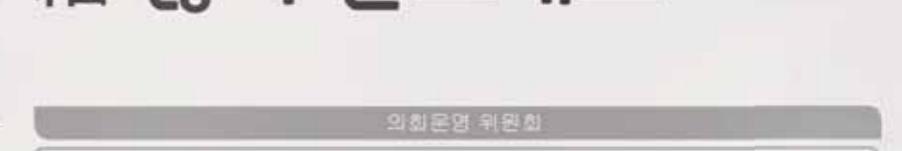
의장 박경희

부의장 이경선

의회 운영 위원회



행정복지 위원회



재정건설 위원회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한다.

최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수유동 170번지 일대 면적은 12,124㎡, 101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재정은 1년 단위로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구정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 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정장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 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될 수 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백두산호랑이 영상 공개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준균)가 2022년 임인년 '흑호의 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한 달간 삼성동 코엑스 일대 옥외전광판에 백두산호랑이 영상을 공개한다.

영상은 국내 최초로 아생 호랑이를 활용한 최기순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이다. 백두산호랑이가 눈덮인 러시아 시호테알린산맥 숲속을 거니는 모습이 담겼으며, 카리스마와 기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한편, 구는 강남의 역사, 문화, 관광을 소개하는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를 제작·방영 중이다. 또 지난 10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상콘텐츠 전시회 '2021 밀립(MIPCOM)'에 이어 현재 온라인 '싱가포르 ATF'에 참가해 세계 각국의 업체들과 콘텐츠 제공을 협의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연장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호)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 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강남구 '스마트 글로벌도시'로서 제2의 도약 시작

새로운 시작의 새해…지성무식의 자세로 최선 다하겠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를 전하며, '스마트 글로벌도시'로서 제2의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정 구청장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 '1등 도시' 강남은 이제 '스마트 글로벌도시'로서 제2의 도약을 시작했다"며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 ▲현대자동차 GBC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수서역세권개발 ▲구룡마을개발▲암구정 -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강남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온전히 마무리되면 강남은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남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강남스타트업밸리'를 구축하고, '강남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지진 몸과 마음이 어디서든 쉴 수 있도록 '돌산체육공원', '삼성해맞이 공원', '강남 명품 메타세콰이어길' 등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이밖에도 영유아를 위한 '다함께 키움센터', 저소득 청년을 위한 '강남워크브리지 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너메경로당' 등 경로당 4곳 신축'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인프라를 구축한다.

구민의 편의성과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원1·2, 수서 복합문화센터', '세곡동550 생활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 '개포4동주민센터를 이전·신축'하고, 4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강남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메이커스페이스'를 확대하며, '참여형 메타버스'도 구축한다.

정 구청장은 "이런 기분 좋은 변화들 속에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도 포함돼 있다"며 "구민의 행복을 바탕으로 이웃 간 정이 넘치는 '품격 강남'을 만들고,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을 우리 사회에 나누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더시티(Mother City)'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미위 강남" 정신의 실천에 보다

힘을 쏟아, 파리16구처럼 강남구민임이나 자신의 자랑이자 긍지가 되고 다른 지역 구민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2018년 7월 민선7기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설기 좋고 안전한 '필(必)환경 도시' ▲밝고 큰 꿈을 꾸고 실현하는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다운 최적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 도시' ▲주민이 함께 하는 '공감행정 도시' 등 네 가지 실행전략에 따라 지난 3년 6개월간 강남을 위해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자세로 일해 왔다.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를 위해 지자체 최초 미세먼지프리존·미세먼지프

리존센터 설치, 서울시 최초 초·중·고·특 수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지속적인 하수악 줘자감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 도로청소 차 확대 운영 등의 노력으로 강남구는 '2년 연속 서울시민이 평은 청결도시 1위'에 선정됐다.

특히 도시 이미지와 강남의 공동체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킨 도시브랜드 '미미위 강남'으로 대한민국 서비스 대상,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접자·음성·수어 통합안내시스템' 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1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정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강동구, 2021 대외기관수상·공모사업 473억 확보

국무총리상·장관상 13개·WHO 등 국제상 5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등 구정 우수성 인정받아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2021년 중앙부처를 비롯 각종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101개 분야에서 수상실적을 거두고 473억 9000만 원의 지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국무총리상과 장관상 13개, WHO와 AFHC 등 국제상 5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과 여성친화도시 인증 등 대내외의 우수한 평가로 구정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는 영유아 복합커뮤니티 공간 '아이·맘 강동'은 이용자 맞춤형 공간 조성과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 1·3세대 공동 공간 '꿈미소', 학교 내 유숙공간을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행복학교' 사업 등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우수한

정책들로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과 치를 매개로 소통과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복카페도서관 '다독다독'을 지역 특성과 이용 주민들의 수요를 담아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대내외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비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서관정책 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 장관상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자치단체 문제해결 역량강화'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동네 시니어 돌봄단' 운영으로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돌봄SOS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약계층과 1인 가구가 밀접한 구도심 일대에 '천호보건지소', '1인 가구 지원센터' 등을 갖춘 '천호 아우름 센터'를 개소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위기구구 신고포상금', '희망디딤돌기금' 등의 제도는 복지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강도시분야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인 국제상 5개를 수상했다. UN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WHO 건강도시상을 5년 연속 수상,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이 주관한 'AFHC 건강도시상'

에서는 건강도시 발전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아동비만예방사업 '몸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 '비대면 치매관리 유통모델', '지속 가능 건강도시 강동(G-SDGs)' 3개 사업이 '건강도시 창조적 발전상을 수상해 한 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회복 앞당기는 데 온 힘"

신년사 통해 자영업자 피해 구제·청년 미래·돌봄 기능 확대 등 강조



려하는 창업환경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 끝난 후에도 돌봄 기관 및 돌봄 전문가를 꾸준히 확대해, 선진적인 돌봄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유아이보육, 초등교육, 노인복지 영역에서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사회 돌봄 기능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회복은 교육현장을 안정 되찾고, 벌어진 교육격차는 그 틈을 좁혀야 한다.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돌봄의 사각지대에는 따뜻한 손길이 달아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회복을 앞당기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 청렴한 의정활동, 현장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높아진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면서 신뢰 받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새해는 지방자치 제도에 많

은 변화가 있는 해다. 개정된 지방자

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앞당겨질 것"이라

며 "특히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짐으로

써 이전보다 강화된 전문성을 보여드

릴 수 있게 됐다. 집행부 감사·견제, 정

책 입법, 민원 해결 등 의정 전반에 걸

쳐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

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청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건강

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및 창업기회 확대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청년들을 위한 정

규칙 일자리 확대는 물론, 도전을 장

마포구, 구민 10명 중 9명 "10년 후에도 마포에 살고 싶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1년 마포구 사회조사' 결과 구민 10명 중 9명은 10년 후에도 마포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밝혀 주민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관심사와 생활 모습, 의식 구조 변화 등을 조사한 2021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

명동구 구청장은 "지역통계는 구민의 생활모습과 의식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담긴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포구의 특성과 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중 '문화 및 여가시설'과 '환경 여건'은 2019년 조사 결과 보다 가장 큰 폭(각각 18.2%)으로 상승했다.

마포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 '복지분야'(24%)를 가장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육분야'는 지난 2017년 결과 대비 14.1%p로 상승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서정의 기자 seo@jeonmae.co.kr

謹賀新年

2022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HO 구로구청 직원 일동

매봉산 일출 장면

인천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 ‘청사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인천 계양구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금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일시금 200만 원의 국민 행복카드(비우처)로 지급된다. 단,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다급상태통장’으로 예외적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증정일 후 자동 소멸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통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포함)에서 쓰도록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첫만남이용권 도입에 따라 그동안 지원했던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대신 입양장려금을 200만 원으로, 디자녀양육비를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새 이름 선정

인천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칭공모를 통해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공간 새 명칭 공모는 군·구가 설치 중인 유유기지 간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인천 청년 활동의 거점이 될 공간의 명칭을 세대 공감과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시민 누구나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새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유유기지의 새 명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청년비표, 네이밍 전문기자를 포함해 청년비율 50%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시민온라인 헌신도조사와 선별상표 조사결과를 반영해 새 명칭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네마루’는 가장 유행이 되는 청년 공간이 되며, 청년의 비상을 지원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향후 새 명칭에 어울리는 BI를 개발 후 인천 청년 공간의 새로운 공식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안부 장관상

인천 부평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에서는 총 208건의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 재정 등 분야별 사례를 심사해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구는 ‘자체 기획·제작을 통한 재예산 고효율 최다 혁신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장관상 수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서 1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구는 국정평가 항목인 ‘목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 이용’ 관련 인천나비공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체험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페자재 및 구이 목재를 활용해 나비의자와 캐리어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 총 1억14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우수’

인천 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종합상 분야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게 됐다.

구는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와 사업유형 다양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많은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개편했다. 그 결과 규모는 100억 원으로 크게 늘고 최근 3년간 2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코로나19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 청년을 포함한 전 계층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장애인복지시설 질식사 담당 공무원 감사 착수

인천 모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A씨가 음식을 먹다가 숨진 사건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감사를 받게 됐다.

인천 연수구는 최근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모부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주는 음식을 억지로 먹다가 쓰러졌고,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B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A씨의 아파를 말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학대차사 혐의로 B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을, 업무상 과실차사 혐의로 50대 원장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학대·정황 등이 확인된 시설 관계자 4명도 검찰에 넘겼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제3차 관리기본계획 수립…3대 전략 중심 11개 중점 추진과제 선정
모니터링 통한 생태계 보전·생태계 서비스 이용·보호지역 간 협업 등

인천시가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송도갯벌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EAAF)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회귀 조류

인재아새 등이 서식 도래하는 곳으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에서 해양생태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건강한 개체 철새의 낙원으로 생태

자원이 풍부한 송도를 만들기 위한 비전 아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생태계 보전, 생태 서비스의 현명한 이용, 보호지역 간 협업 및 협업체계구축 등 3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11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기본계획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해양생태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건강한 개체 철새의 낙원으로 생태

자원이 풍부한 송도를 만들기 위한 비전 아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생태계 보전, 생태 서비스의 현명한 이용, 보호지역 간 협업 및 협업체계구축 등 3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11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와 별도로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습지훼손 및 위험요인 조사, 훼손습지 복원사업, 생태계 현황자료 구축사업, 생태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국내·외 습지보호지역 간 네트워크 구성, 습지보전 지역 협의체

구성 및 보호활동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박영길 시 해양환경공단장은 “현재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 내 개발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보전 가치가 우수한 송도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이용 활용방안 등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박남춘 시장, 송년맞이 부서 순회 격려 박남춘 인천시장이 송년맞이 부서 순회 격려에 나선 30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직불을 하고 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옹진군 ‘지역 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유치

인천 용진군과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지역 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유치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국비 49억 원)으로 바다를 접한 지자체의 해양 탄소중립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이 관리하는 해양 면적은 시 전체 해양 면적의 80%로 강화와 영종도 일부 해양 면적을 제외하고 수도권 해양 면적의 대부분을 군이 관리하고 있어 연간 수거하는 바다쓰레기 양도 2000톤 이상으로 매년 바다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

70억 투입 각종 인프라 구축 바다쓰레기 분포도 등 관리

군은 그동안 바다쓰레기는 인적이 닿는 곳만 인력을 동원해 수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 해안절벽 아래 등은 수거에 업무를 내지 못하고 실정이며 바다쓰레기가 주로 많이 이포하는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시와 군이 유치한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에서부터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쓰레기의 경로, 최종

종착지 및 전체적인 바다쓰레기 분포도 등의 모든 데이터를 인공위성 및 드론, 해저 음파탐지 장비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해 AI가 적용된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으로 전송·제작적으로 바다쓰레기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정정민 군수는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이 구축되면 오는 2023년 건조 예정인 도서 쓰레기 정화·분석과 연계해 당초 인력에만 의존해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화되고 제작적으로 바다쓰레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 고교 학급수 줄고 중학교·특수학교 학급수 증가

신입생 늘었지만 졸업하는 학생 더 많아
검단신도시 입주·황금돼지해 출산율 원인

내년 인천지역 고등학교의 학급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중학교와 특수학교 학급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인천 내 고등학교 학급 수는 3075학급으로, 지난해 3083학급보다 8학급 줄어든다.

올해 고교에 진학하는 933명의 학생이 내년에는 900여 명늘었지만, 학교를 졸업하는 고3 학생이 이보다 더 많이 전제적인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2797학급에서 56학급 늘어난 2853학급이 편성될 예정이다.

올 4월 기준 7만8222명이었던 인천 내 중학생 수가 내년 8만1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급 수도 평균화 늘어난 2883학급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유

이에 전체적인 학생 수가 감소한 계양구와 부평구의 경우, 각각 중학교 9학급과 3학급이 줄었지만, 나머지 8개 군·구는 학급 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생은 아무래도 입사를 앞둔 고등학생보다 전·인학부단이 많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이 고교보다 활성 많다”며 “과밀학교 중에서는 여유 교실이 있는 중학교들을 위주로 학급을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교 역시 지난해 1049학급에서 65학급 늘어난 1108학급이 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확충된 특수학교(32학급) 수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18학급, 유치원·초·중·고교에 설치된 특수학교 47학급이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유아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수학교를 41학급 대폭 늘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 예방, 미리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필요하다”며 “특수학교 평판을 망고, 아이들을 법적 정원에 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유아·초등 특수학교를 많이 늘렸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신년인터뷰 – 혁신환 동구청장 <上>

“구민 행복” 최우선 가치 실현에 매진할 것”



혁신환 동구청장은 “구민 행복”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규모는 100억 원으로 크게 늘고 최근 3년간 2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경찰은 학대차사 혐의로 B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을, 업무상 과실차사 혐의로 50대 원장을 각각 검찰에 넘겼다.

구는 이를 위해 기존의 어린이집 무상보

돌봄 시설을 집중 배치, ‘아이 카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청본이터미터 청소년 특화도서관 등 생활밀접형 공립 도서관 3곳을 조성, 독서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어르신의 일상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확대 지원한다.

특히 1인가구와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저감시설 설치자원과 인천e음악가 동구마켓을 내실 있게 운영, 원수원화 도시로 나갈 방침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동을 위한 중점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유수기지 동구청장 21회 본격 운영, 청년들의 취업·창업·컨설팅을 지원한다.

혁신환 동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중구,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 추천 <上>

영종국제도시 운남동일대 추천…인천공항 10분 거리

감염병 발생 즉각 대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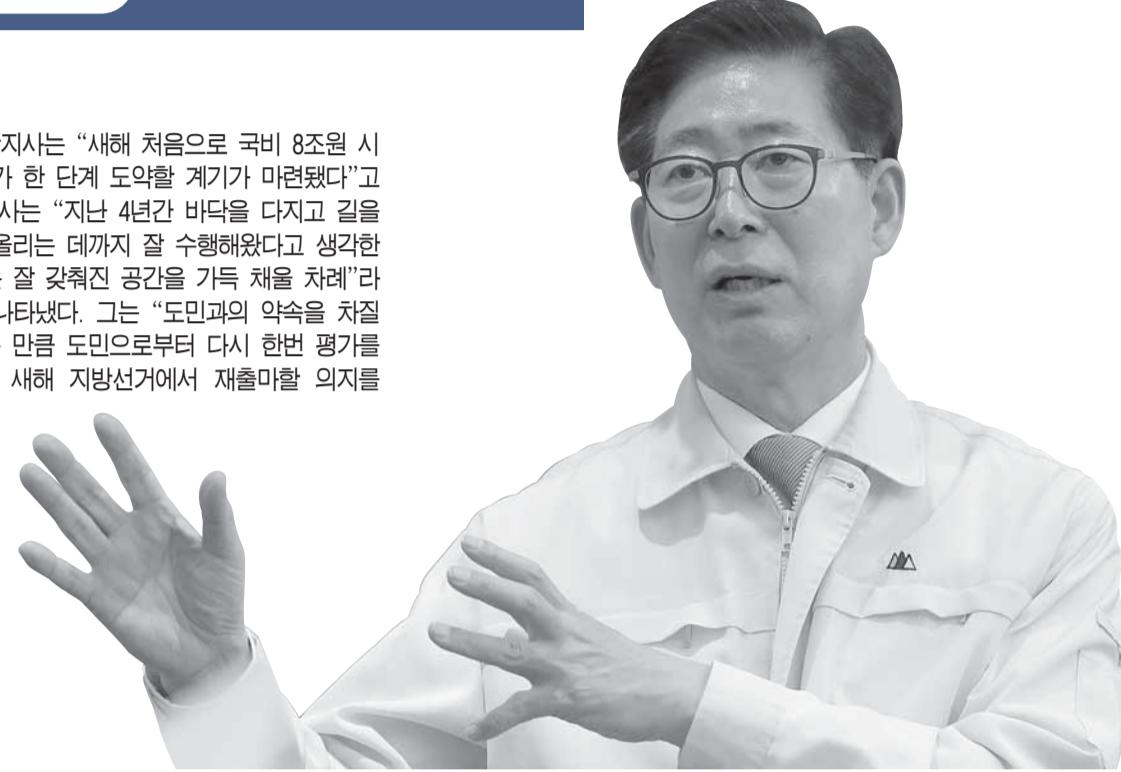
인천

</

“새해 국비예산 8조 시대 한 단계 도약 계기 마련”

2022년 새해설계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새해 처음으로 국비 8조원 시대를 열며 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난 4년간 바닥을 다지고 길을 내고 건물을 올리는 데까지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잘 갖춰진 공간을 기득 채울 차례”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수행해온 만큼 도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싶다”며 새해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할 의지를 내비쳤다.



● 새해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는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국립경찰병원 이전분원 설립 등 주요 현안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 국비 예산이 8조원이라는 달성을 위한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교통 소외지역인 태안에서 서산까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비 3억원이 반영된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

공주 탄천지구 디자인 농촌융수개발 기본 조사비 3억원과 서천 브리운필드 이전동물 보호지유시설 9억원, 논산 국방교육연구센터 조성 연구용역비 2억원 등 도내 균형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마련됐다.

● 아쉬운 점이라면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정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등을 직접 찾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충남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

기관 이전을 위해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을 방문해 그런 의사를 타진하는 등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새해 도정 운영 방침은

지난 4년간 바닥을 다지고 길을 내고 건물을 올리는 데까지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 잘 갖춰진 공간을 기득 채울 차례라고 본다. 민선 7기의 도정 마무리를 잘해야 다음 과정을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민선 8기 충남 도정이 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

가로림만 해양정원·해미국제성지 명소화 등 주요 현안 반영
석탄화력 2045년 완전히 폐쇄 … 민선 8기 순항 준비 만전
4년 도정 성과 도민에 평가받겠다 … 재출마 의사 표명

”

년 폐쇄하고 지난 7월 기동한 신서천화력발전은 수명 만족을 통해 나머지 12기와 함께 2045년 폐쇄 또는 중단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조성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와 운용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100%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사업,

● 새해 6월 지방선거에서 지사직에 재출마 하다

임기 동안 4선 국회의원 인맥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충남도 발전과 도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왔다고 자부한다. 도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수행해온 만큼 도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행정수도 완성 공론장 기대”

2022년 새해설계 이준희 세종시장

이준희 세종시장은 “3월 대통령 선거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경쟁의 공론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선 이후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이 필요한 만큼 시장 추이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범칙한 현상으로 보나

임대주택 확충에 대해 협의해오던 중 지난 12월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천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관계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 최근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잊달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들 정당 대선 후보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선 이후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월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편의로 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경쟁의 공론장이 되길 기대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위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정수도가 개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는 만큼 대선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

대선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 시민 주거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집값 대응해 나갈 것 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확대 계획 차질없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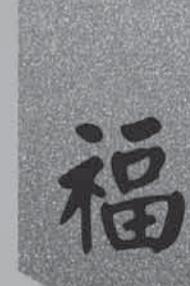
”

치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 새해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이나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희망찬 임인년



성북구 직원 일동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차다
답을 찾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학습 결손이 나타나고 공교육을 향한 불신이 평창하고 있다. 등교하지 못하는 데 따른 악영향은 학습을 넘어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와 심리 안정, 생활습관 등 성장 전반에까지 미친다.

/ 연합뉴스

아이들 일상 ‘실종’ …새해엔 교문 활짝 열리나

임인년 새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교육부는 겨울방학 기간 정상 교육으로의 회복에 집중해 2022학년도 1학기에는 소풍, 수학여행 같은 비교과 활동을 포함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룬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의 조치는 학교별로 겨울방학 시작 시점에서 종료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지 않는 한 새 학기 정상 등교가 불안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학기 전면등교 방침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밀집도를 연계해 왔다”며 “현재는 비상계획을 실시 중이고 개학할 때 아脈자는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아직 낮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학교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온전한 학교생활을 누리지 못한 것에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올해 새 학기에는 전면등교, 대면활동 강화 방향으로 학사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학습 결손·사회성도 결여
생활습관 한순간 무너져
우려스러운 ‘코로나 세대’
등교·겨울철 감소세 관건

방학 동안 접종에 더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습 결손이 나타나고, 공교육을 향한 불신이 평창하고 있다.

등교하지 못하는 데 따른 악영향은 학습을 넘어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와 심리 안정, 생활습관 등 성장 전반에까지 미친다.

생애주기 중 한 시기로 온전히 성장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장기간 집에 갇히다시피 지내면서 일상이 무너진 ‘코로나 세대’ (C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학부모 이모(42)씨는 “게임, 인터넷 노출에 위험한 나이인데 유튜브로 연결되는 질 낮은 원격수업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았지”며 “신체활동이 크게 줄어드니 체중이 불고 건강상 영향도 컼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녀를 둔 정모(30)씨는 “매일 등교, 격일 등교, 원격수업을 번갈아 하니 아이들의 아침 기상 시간도 이에 맞춰 달라진다”며 “학습보다도 생활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하네 자주 바뀌는 수업방식이 이를 방해한

다”고 안타까워했다.

사회가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어온 만큼 학교 방역과 운영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아이들의 학교 갈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기준이나 범위가 학교마다 달라 혼란이 있고 등하교와 점심시간 등에 방역 인력이 부족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방역에 취약한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학생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학교 통지 의무화, 학교방역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교원 감염시 대체인력 투입 등 체계화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며 “방학기간 새 학기 등교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학교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회 방역과 교육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서울의 중심 중구

덕수궁
정동길
DDP
승례문
남산
청계천
명동성당
동대문패션타운

“대한민국 보물, 중구에 있습니다.”

화성의 도시 강북

임인년(壬寅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환경과 이해관계인을 중시하는 ESG경영 선도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가정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GCMC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최저임금 시급 9160원…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 행정·안전·질서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오는 21일부터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을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 충실히진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오는 13일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자치체를 말한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내달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结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 제출 의무 등이 생긴다.

● 보건·복지

▲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2만4000개 늘려 84만5000개까지로 확대한다.

▲ 지역 공공병원 지원 확충= 새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할 때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한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집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1800원씩 받을 수 있다.

● 국방·병무·외교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 인상= 새해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올해보다 11.1% 오르는 것이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비데 신규 설치=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 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신규 설치한다. 새해에는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만 우선해 전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범 도입= 육군의 예비군의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50명의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해 연 180일 이내(장기)에서 지휘관, 참모, 전투장비 운송·장비보조 등으로 근무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연 30일 이내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4만7000원에서 올해 6만2000원으로 32% 인상된다.

● 교육·보육·가족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 전형으로 실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재



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라면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 5000 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준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세째 이상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 고용·환경·기상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퀘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전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에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 농림·수산·식품

▲ 농지 일부 편지 기준으로 개편=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 일부부가 편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 농지연금 기입연령 하향 조정= 농지연금 기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된다.

▲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들어선다.

▲ 농작물재해보험료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단위가 '사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 둥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둥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둥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둥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된다.

▲ 외항선 납품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새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수출 실적 증명서는 오는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賀謹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壬寅年(임인년) 2022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행복이 가득하고 행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호남취재본부 후원회-



딸 자해 오인 방문 뜯은 엄마…현재 “처벌 못해”



화제의 판결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 딸이 걱정돼 문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에 처분이 한법자판소에서 취소됐다.

현재는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처분 취소 청구에서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집에서 의붓딸 B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팬티로 손잡이를 훼손했다. B씨는 A씨의 남편과 그의 전 처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는 불리 도 대립이 없는 의붓딸이 각 장례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정신 치료를 받았는데 상담 과정에선 ‘친애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짖은 외박, 자혼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력을 시도 했다’거나 ‘술을 마시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었다.

한국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경황과 경위 등을 침해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A씨는 이런 감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이야기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점은 A씨의 행위가 ‘오상파난’(誤想

검찰 재물손괴 유죄 취소
“위험한 상황 오해 가능성”

避難)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금지해 난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위난이 없었는데 오인했다면 오상파난이 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각별적인 관점에서 B씨의 생명·신체에 자해 등 침해 행위의 발생이 근절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으면 A씨로서는 B씨가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문을 부술 무렵 남편과 연락이 가능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의 소유자는 남편이었으므로 방문 손잡이의 처분 관점도 남편에게 있는데, 상황을 보면 남편은 연락이 달랐다면 A씨의 순기 행위를 승낙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 “검찰은 오상파난을 인정할 정

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피해자의 주정적

승낙 인정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 재물

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성기자

경기도, 토양오염물질 검출 5개소 기준치 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1개소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를 한 결과 공정폐수 유입 지역 등 5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증금속 또는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과 검출물질은 시각장 관리 시설 1개소(안양), 교통 관리 시설 1개소(안산), 공정폐수 유입 지역 2개소(영택, 광주), 노후·방치 주유소 1개소(기평) 등이다. 기생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는 이전에 기준치 200mg/kg를 7배 이상 초과한 1

인천 해안서 고립된 나들이객 4명 구조

서해 첫 주말 인천 해안에서 나들이객 4명이 고립됐다가 잇따라 해경에 구조됐다.

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복음도 인근 해안에 60대 여성 A씨 등 2명이 고립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공기부양정과 고무보트를 투입해 이들을 구조했다. A씨 등 2명은 지인들과 통신을 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해안가

비우에 고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27분에는 인천시 중구 대무의도 인근 갯벌위에 50대 여성 B씨 등 2명도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는 조수기만의 차가 매우 크다”며 “갓비위나 갯벌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맹정기자 mchs@jeonmae.co.kr

민5184.1mg/kg 검출됐으며 광주 공정폐수 유입 지역에서는 불소가 기준치 400mg/kg보다 많은 524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조과 지역의 관찰 시·군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해당 시·군은 토지 소유자를 통해 정밀 조사 및 토양생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밀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내 환경부 지침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 토양 질화를 실시하게 된다.

한국일보기자 han-y@jeonmae.co.kr

황갑선 전국하동향우연합회장, 작년 한해 후학양성 8000만원 기탁

2013년 이후 1억 6430만원 ‘명예의 전당’ 9번째 다이아몬드 아너클럽 가입

8년째 고향의 후학양성을 위해 거액의 장학 기금을 기부한 행위가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013년부터 남모르게 꾸준히 고향을 위해 풀 큰 기부를 몸소 실천해온 명물하진 황갑선 전국하동향우연합회장이다.

경남 하동군장학재단은 황 회장이 고향 후학 양성을 위해 지난 7월, 11월 각 3000만원에 이

어 최근 장학기금 2000만원을 기탁해 지난해 8000만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회장은 “하동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 차오르며 어려웠던 학창시절의 어려운 추억이 주님들처럼 스쳐간다”며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희망을 키우고 꿈을 이루고 고향을 빛낼 흔들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로 재단 이사회는 “미래의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군수는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황 회장의 변함없는 고향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일포스 하동의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노래하는 희망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홀부의 고향 후배사랑은 특별하다. 협성기업(대표 차현숙)과 협성자원(대표 황갑선)을 운영하는 부부는 2004년 30만원으로 인연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015년 각 300만원,

2017년 1800만원, 2018년 1000만원, 2019년 2000만원, 2020년 3000만원, 2021년 8000만원 등 부부이름으로 기부한 금액이 지금까지 1억 6430만원으로 ‘명예의 전당’ 다이아몬드 아너클럽(1억원 이상 기부)에 9번째 가입됐다.

이들 부부의 각별한 고향 사랑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4년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2014년 화재장터 화재 때 1000만원, 2018년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지난해 화재 수해 때 1000만원 등 지금까지 4200만원을 기탁하며 고향 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하동/ 임홍설기자 lmhs@jeonmae.co.kr



‘와 신난다’ 새해 둘째날인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눈썰매장에서 어린이들이 호랑이와 함께 눈썰매를 타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진기자

사건·사고

700억대 판돈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수연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700억대 판돈을 끌어모은 혐의(도박공금개설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400여만원 추징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4500여만~5800여만원 추징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의 총판(회원모집 역할)’을 맡아주면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4월까지 사이트 운영에 관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소개로 베팅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네 사람이 1년여간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베팅 받은 금액은 총 72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베팅은 사행심을 조성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A 피고인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 박선식기자 ssapk@jeonmae.co.kr

기행부 축대 작업 중 5m 아래로 추락한 60대 사망

축대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서 축대 위 작업 중이던 A씨(60)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인공 연못으로 떨어졌다. 연못의 물이 얼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최전방 감시망 또 뚫렸다…철책 통해 1명 월북

군, 새해부터 ‘경계실패’…CCTV 포착·경보 속 3시간동안 몰라

생사 확인 불투명…국민보호 차원 대북통지문 발송

서해 첫날인 1일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김포도 동부전선 224번지 지역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군 당국은 월북자가 일련번호(GOP·일련전호) 철책을 넘을 당시 감시경비에 포착됐는데도 3시간 동안 월북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경계감시망 하점뿐 아니라 조동조치 부실 비판을 꾀하기 어렵게 됐다.

협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경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 위해 자전 병력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날 오후 6시 40분에는 불과 3시간동안 철책을 넘은 뒤 신병 확보 작전 돌입하기까지 약 3시간 동안 몰랐고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다.

협동 관계자는 “초동조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하는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며 현재 경계감시망을 조사하기 위해 협동 전기비서관 열심 요원들이 현장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월북자와 소원과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해당 부대 병력 안전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탈북민 여부 등도 과학증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오늘 이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알파의 통지문은 “철책에 이상이 없다”고 자체 판단해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감시경비가 이중으로 월북지를 포착하고 조동조치 부수가 출동까지 했지만 군은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뒤 신병 확보 작전 돌입하기까지 약 3시간 동안 몰랐고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다.

서정의기자 seo@jeonmae.co.kr

지난 1일 오후 7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깨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80여명이 대피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2대가 전소됐고 4대는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이 불로 모두 88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화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 양철기자 ckyang6@jeonmae.co.kr

새해, ‘지속가능한 백년도시’로 더욱 빛납니다.

하남시



동정



2022년 시무식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3일 오전 9시 보령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2년 시무식에 참석.



2022년 시무식

장기현 경북 영주시장은 3일 오전 10시 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2022년도 시무식에 참석.



마현산 총Hon 탑 참배

최기문 경북 영주시장은 3일 오전 7시 30분 간부공무원 등과 함께 마현산 총Hon 탑을 참배하고 신년 업무를 시작한다.



2022년 시무식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는 3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2년도 시무식에 참석.



2022년 시무식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3일 오전 9시 35분 군청에서 열리는 2022년 임인년 시무식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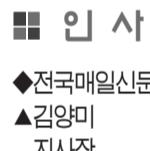


허석곤 소방감, 인천소방본부장 취임

조지 내 신뢰와 전문성 기반, 시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안전한 인천시’ 구현 인천소방본부는 3일 제22대 인천소방본부장에 허석곤(54·사진) 소방감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허 본부장은 부산대학교 해양대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8년 소방간부후보생 7기로 공직에 입문해 소방청(옛 국립안전처) 119구급과장, 경기도소방학교장, 물산소방본부장,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 경남소방본부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탁월한 업무주간력과 기획력, 현장지휘능력을 두루 갖춘 겸증된 소방지휘관으로 특히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와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렵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사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김양미

지사장

<1월3일자>

“어려운 이웃에 작은 보탬 되길”

39년째 기부 나눔문화 확산 기여



전남 순천금당남부교회는 최근 저소득층 지원에 써달리며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순천시에 기탁했다.

<순천시 제공>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당남부교회는 지난 1981년부터 39년째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자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소중히 전달해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다문화가정 지원 등 지속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목포신항만운영, 전남도지사·관세청장 표창

여종구 대표이사·정창호 팀장, 해상풍력산업 발전 공로



전남도지사 표장을 수상한 여종구(가운데) 대표, 정창호 팀장과 관세청장 표장을 수상한 심종민 프로.

<목포신항만운영 제공>

것”이라며 “시해에도 관세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 대표는 “해상풍력발전 지원항만으로의 중주적인 역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목표/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정윤경 경기도의원, 청소년 1000명 선정한 ‘청소년희망대상’

경기교육공동체 구현 등 기여 공로



교육공동체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학교현장을 정상화하고 원격수업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적 노

력을 기울였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요청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선제적인 연구활동으로 미래전략을 분석하고 제시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임 이 본부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국

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소방청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탄탄한 현장지휘 능력과 풍부한 행정 역량을 두루 갖췄고 대사장과 긍정적인 사고와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을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조직 내 소통과 회합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경북소방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적극적인 방침과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미옥 기획예산담당관

의령군 첫 여성 서기관에

경남 의령군에서 첫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2월 군에 따르면 이미옥(사진) 기획예산담당관을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여성인 의령군에서 국가으로 승진한 사례는 최초다.

이 국장은 2017년 공직에 입문해 각 실과 계장을 거쳐 2017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역임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맡는 등 의령군 주요 요직 두루 거쳤다.

특히 업무 외에 온라인 성품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큰 본보기되고 있다.

오태란 군수는 “능력 앞에 성별은 장벽 일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치우침 없는 균형 인사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군의 전보인사는 오는 7일 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의령/ 최관균기자 chpag@jeonmae.co.kr

포토뉴스



인천 중구,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촉식

인천 중구는 최근 제27차 대회의실에서 ‘중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촉식을 가졌다.

인천/ 경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정선군 사북읍체육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원 정선군 사북읍체육회는 2일 사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쌓아두며 사랑 나눔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광주광역시의회, 사랑 나눔 실천 ‘훈훈’

의원 23명 월정수당 25% 자발적 기부

광주광역시의회 23명의 의원 전원이 최근 월정수당의 25%를 자발적으로 모금, 이 중 1150만원은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기탁, 나머지 일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마스크 500장을 구매,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김동찬(시작)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분들로 대구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의원 모두가 실시일반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며 “모두가 힘든 코로나19시대를 하루빨

주기경쟁예산인을 의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대한 방역체계의 강화와 지역경제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성호기자

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신도회, 사랑의 성금 고성군에 기탁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신도회는 최근 시령의 성금 500만원을 함영준 강원 고성군수에게 기탁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2021년 정부포상 수여식

양군, 모범공무원·지역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

경원 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모범공무원과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식을 개최했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인삼 산업발전 및 수출 유공 표창 수여

충남 금산군은 최근 군청에서 인삼분야 활성화에 공헌한 12명에게 인삼산업발전 및 수출유공자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두천시는 2022년의 화두를 “신종여시(慎終如始)”로 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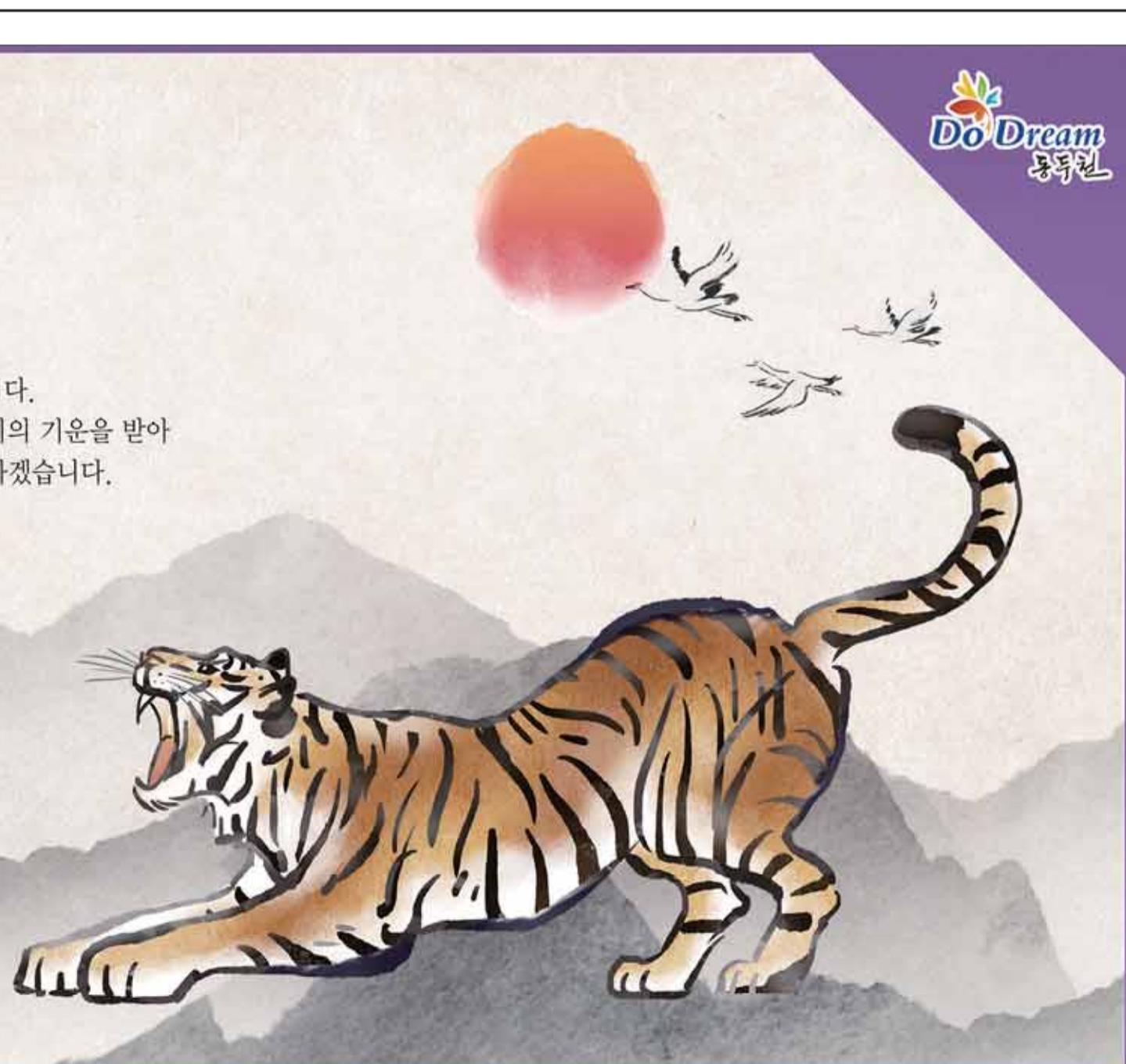
‘일의 마지막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과 같이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시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Do Dream DongDuCheon!”



코로나 팬데믹 종식 위한 우리의 다짐

데스크칼럼



최승필

지방부국장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가 가고 익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왔다. 지난 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년을 맞아 어느 해보다 힘든 해였다. 그래서 그런지 2022년 익인년 새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자상'이 대수를 치자하고 있다. 대전 대리구는 사해 사자상이론 '금석위(金石禦開)'를 선정했다고 한다. 금석위라는 '아린 일(勤) 강한 의지로 열성을 다하면 그 마음이 통으로 소와 물도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지성(至誠)이면 김경(感天)이다'라는 구절과 뜻 같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 위기 등 현실에 딱친 어려움을 주민과 함께 굳은 의지로 극복해 나가자는 각오를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아린 일(勤) 강한 의지로 열성을 다하면 그 마음이 통으로 소와 물도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지성(至誠)이면 김경(感天)이다'라는 구절과 뜻 같다.

전북 경읍시도 새해에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이어지더라도 공직자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신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 다음으로 선택한 사자상에는 위기가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내실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의지를 담아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질러지는 의미의 '수도선부(水倒船腹)'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야 했던 2021년에 대해 '온분에서 호평이가 막고 있으니 뒷문으로 누대가 들어온다'는 의미의 '전호후광(前呼後熒)'을 선정했다. '우리의 앞길에 순종만이 아니라 폭풍우도 만나고 거센 바람도 몰아칠 것'이라며 "그럴수록 '폭풍언등'의 의미를 되새겨며 포함하는 검은 호광이처럼 2022년을 위해 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세계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의 '견인불발(堅忍不拔)'을 선정한 전북군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공세계 참고 견디어 위기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舊唐書(상서), 泰華篇(태화편)에 나오는 成語(성어)로,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 무왕(武王)은 포야한(殷)나라 주왕(紂王)을 평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황하(黃河)강을 건너온 나라의 도읍인 조가(朝歌)로 진격했다.

그곳에서 무왕은 군사들의 시기와 힘을 높이기 위해 하루로 단결해 쌔들에게 공을 세우자는 각오로 '서사'를 발표했다고 한다. '주왕은 많은 군사와 관리를 거느리고 있을지도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함께 일치단결해 하나님의 목표로 마음과 힘을 같이 하고 있다(同心同德)'는 내용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익인년'을 맞아 등장하고 있지만 '올해의 사자상'은 재미다 뜻과 음은 다른지만 코로나19로 상정되는 어려움을 국민 모두 함께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의 기여와 희망, 의지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각오를 담아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노적성해(露滴成海)'를 선정했다고 한다. 광명진 대구시정은 '나름이 거세면 연은 더욱 높이 난다'는 뜻으로, 역경을 만나면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의 '동신언등(風迅騰騰)'을 선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연이은 원재자파, 파동, 물류 및 인력난 등이 앞으로 걸쳐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는 의미다. 전남 진도군은 암연을 맞아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능동적인 군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는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로, 진도군은 군민들의 도모로 일정을 결집시켜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온 군민과 관광자료로 발돋움하는 진도군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코로나19에서 겨우 벗어나 일상회복의 문턱에서 서 '오미드론 변이'라는 뒷수에 변수를 만나 다시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어려움에 직면해지만 군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나주시도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원한다면, 비록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목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심상구지(心誠求之)'를 선정했다. '세상 모든 일의 상처는 얼마나 진실을 갖고 성실히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느냐'로 탈피했다. 여기서 코로나19 위기가 저물되고 있지만 무더운 목표와 긍정의 마음으로, 성실히 그 목표를 향해 가고 나아가면 우리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된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세계 주요국의 '워드 코로나' 정체 도입에 따른 글로벌 수입 수요 증가에 해당 품목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수출증가로 상승의 렘을 특별히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친환경 전환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주산지와 전기차 등에서 유수를 접하고 있는 국내 산학 및 기관,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화학제품 제조업(765), 농수산물(735), 기계제품(876)은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화학제품 제조업은 글로벌 생산망의 증설에 따른 공급망과 더불어 최근 수출국이 중국의 자금을 빌기면서 수출이 감소되는 현상과 전반되고 있다. 향후 수출환경을 평가하는 10개 항목 중에서는 수출 상장(1168), 수출계약(1128), 설비자동화(1066) 등을 중심으로 수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출제품 제조업(733), 국제 수급상황(841), 수입 규제·통상마찰(833)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기업들이 1분기 수출 이론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항목은 원자재 가격 상승(261%)과 물류비용 상승(55%)이었다.

이 같은 원재료 상승과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실적 상승에 힘입어 올해 호조 속에 대한 기대를 기우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자체에 따른 비대

사설

올해 수출 증가세 이어갈 듯

면 혁신 등의 영향으로 탄탄한 실력을 확보한 이들 회사가 해외에서 경쟁력을 30% 상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한국 경제를 들썩인 대내외 상황이 모두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탈타, 오미드론 변이까지 창궐하면서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로 이어져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물류 수출은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간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20개 기업 대상 수출 경기 호조세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이 지난해 연말에 국내 1,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분기 수출·임업경기 전망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FBSI)는 115.7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BSI가 100을 상회하면 향후 수출 예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선박(150.0), 석유제품(144.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42.4)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높게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세계 주요국의 '워드 코로나' 정체 도입에 따른 글로벌 수입 수요 증가에 해당 품목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수출증가로 상승의 렘을 특별히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친환경 전환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주산지와 전기차 등에서 유수를 접하고 있는 국내 산학 및 기관,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화학제품 제조업(765), 농수산물(735), 기계제품(876)은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화학제품 제조업은 글로벌 생산망의 증설에 따른 공급망과 더불어 최근 수출국이 중국의 자금을 빌기면서 수출이 감소되는 현상과 전반되고 있다. 향후 수출환경을 평가하는 10개 항목 중에서는 수출 상장(1168), 수출계약(1128), 설비자동화(1066) 등을 중심으로 수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출제품 제조업(733), 국제 수급상황(841), 수입 규제·통상마찰(833)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기업들이 1분기 수출 이론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항목은 원자재 가격 상승(261%)과 물류비용 상승(55%)이었다.

이 같은 원재료 상승과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실적 상승에 힘입어 올해 호조 속에 대한 기대를 기우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자체에 따른 비대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만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흔히 '스토킹'이라고 하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신체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통신·선플·미행·감시·간접·직접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스토킹 하는 사람을 이어스토커(stalker)라고하는데, 대부분 인력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양심적인 험성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신체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스토킹 차별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지난해 국회의원들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차별법'인 '지속적 피해법'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교류'에 그쳐 왔다. 그러나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통과되면서, 10월 21일자로 본격 시행령에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다면 '스토킹 행위'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상

다봉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반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가로다니거나 차도는 행위, 정년통장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악·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말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2722건, 2019년도 5188건, 2020년도 4515건의 스토킹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데이터폭력 경각경수는 2018년 10·25건, 2019년 988건, 2020년 882건으로 2020년도 기준 실현31건, 상폭력 5건, 체포·감금 혐의 688건 등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교네 살인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 하면서 증 태배 기록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 일기장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不但면 비로 112로 신고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징조치, 간접조치, 징정조치 등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하며, 범죄로 발생되기 전이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 주길 바란다.

독자투고

김영삼

전남 해남소방서 소방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주위를 녹이기 위한 난방을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핫선(단락)을 방지해야 한다. 온열이 큰 전열기구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고 과열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뮤즈 또는 차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전기용품을 무시한 채 문어발 배선 등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로 인해 전선이 불붙어 화재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열기구는 반드시 규격전선 및 컨센트에 한 개의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과열방지 위해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외출할 때는 불씨로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더 화재예방에 각별한주의가 요구된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에 대비해야 한다.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회로를 분류해 회로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배선의 과부 손상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

전기 안전사고 예방 알아보기

독자투고

김영삼

전남 해남소방서 소방관

소통·공감·참여 **행복한 양천!**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壬寅年 소통·공감·참여로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謹賀
新年

새해복 많이 받으세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힘들었던 2021년

힘든 일과 어려웠던 일들은 털어버리시고

2022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언론의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전국매일신문 임직원 일동

서울본사 | 인천본사 | 대구본사 | 경기취재본부 | 대전취재본부
충남취재본부 | 경남취재본부 | 호남취재본부 | 강원취재본부 | 제주취재본부